

LG U+, DX인재 육성 나선다

(디지털전환)

사내 구성원들 역량 배양
‘드림 빅데이터 과정’ 시작

LG유플러스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확산 추세에 맞춰 사내 구성원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DX) 교육 프로그램인 ‘드림 빅 데이터 과정’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드림 빅 데이터 과정은 LG유플러스 구성원들이 DX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한 달간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크게 ▲DX의 기초 개념과 시각화 도구 활용법을 배우는 ‘데이터 분석의 이해’ ▲현업과제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이터 비즈니스 인사이트’ 등 두 단계로 나뉜다.

첫 기수가 교육을 받는 7월 한 달간 서울대학교 데이터마케팅센터에서 진행된다. 현업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이슈와 연계된 실전 커리큘럼에 따라 열린다. 교수 또는 조교가 교육생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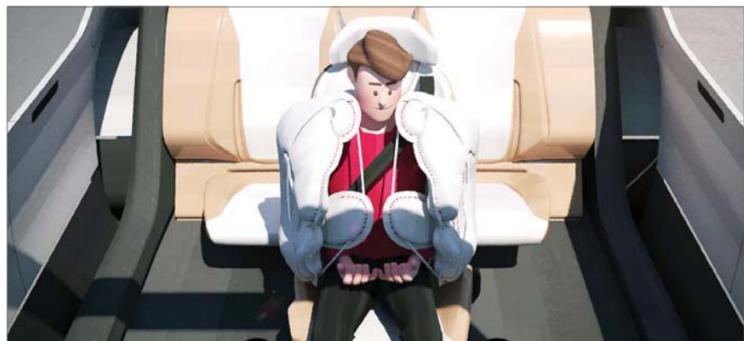
10일 오전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대학교에서 드림 빅 데이터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1대1로 붙어 현업에서는 DX를 다뤄본 적이 없는 직무의 구성원들에게 실습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을 마친 구성원은 DX 관련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데이터 인재 풀’에 들어가게 되며, 조직 내 DX와 일하는 방식 바꾸기에 퍼실리타 역할을 하게 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현대차, 미래기술 애니메이션 시리즈 공개

현대차는 12일 미래 기술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공개하고, 그 첫 영상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시트 내장형 전방위 ‘허그 에어백(Hug Airbag)’편을 선보였다. ‘예기치 못한 충돌 사고에서 온몸을 감싸는 풍선 같은 에어백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연구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현재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허그 에어백은 시트에 내장돼 있다가 승객을 안아주는 형태로 퍼지는 방식이다.

/현대차

AI로 나만의 앨범 만들어 올레tv로 감상

KT, 구독형 ‘포토북’ 서비스 출시
이용료 배송료 포함 월 5000원

KT는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홈코노미’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독형 ‘포토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통신비 한눈에 보기’, ‘가족폰 이어쓰기’에 이은 세 번째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보인 포토북 서비스는 월 정액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정기 구독형 서비스다. 배송료 포함 월 5000원(부가세 포함)의 이용료만 내면 매달 포토앨범 한 권(사진 22장)과 함께 내가 제작한 앨범을 올레tv로 감상할 수 있다.

KT 포토북 서비스는 국내 포토북 업체 스냅스와 제휴해 제공한다. 사진 표현에 최적화된 6색 색상 조합을 적용했고, 인공지능(AI) 편집 기능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AI 사진 편집앱이 분석해 22장의 사진을 자동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추가로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직접 선택하거나 텍스트 입력을 통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남길 수 있다.

또 올레tv로 디지털 포토북을 감상



KT 모델들이 ‘포토북’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하고, 4대까지 공유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올레tv를 연동한 후 리모콘에서 ‘#4747+확인’을 누르거나 음성인식으로 ‘포토북’을 발화하면 저장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다.

포토북은 멤버십 앱(아이폰 단말은 15일부터 이용 가능)을 통해 제공한다. 멤버십 앱에서 포토북 가입 후 사진 편집기만 설치하면 된다.

KT는 포토북 출시를 기념해 첫 달 이용료는 무료로 제공(포인트 1000점 차감)하며, 두 번째 달부터는 월 10% 할인 가격인 4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월 제작이 어려운 경우 4개월간 제작횟수를 모아서 프리미엄 포토북 한 권을 제작할 수도 있다.

/김나인 기자

14개 브랜드 20대 ‘본선 격돌’

‘2021 올해의 차’ 전반기 심사

현대차 아반떼·제네시스 GV80 등
코로나 상황 고려 외부전시 후 평가

쏘렌토·G80·XM3·X6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올해 출시한 신차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자협회(이하 협회)는 10일 경기 용인 AMG스피드 웨이에서 진행된 ‘2021 올해의 차(CO TY)’ 전반기 심사에서 완성차와 수입차 14개 브랜드 20대의 신차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1~6월까지 출시된 신차(부분변경 모델 포함)를 대상으로 최근 회원사 온라인 투표를 통해 14개 브랜드 20대의 신차를 선별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평가대상 차량을 외부에 전시해놓고, 내/외관 디자인과 편의/안전 사양, 목적 적합성, 상품성 등을 종합 심사했다.

평가대상 차량은 현대차 아반떼, 기아차 쏘렌토, 제네시스 GV80과 G80, 르노삼성차 XM3와 캡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 세단과 CLA, BMW X3와 X6, 아우디 A7과 Q8 등이다.



2021 올해의 차 전반기 심사 차량.

류종은 올해의차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전·후반기로 기간을 나눠 올해의 차심사를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특히 올해는 눈길을 끄는 신차가 많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반기 심사에 앞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이 ‘2020년 상반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 리뷰 및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국내 유수의

일간 신문, 방송, 통신사,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등 48개 언론사가 회원사이며, 회원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창달,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 유도, 자동차 기자들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8월 12일 설립됐으며, 2013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매년 1월에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를 뽑는 COT Y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주행성능·승차감 빼놓을것 없는 명차

자동차 시승기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SUV·전기차 열풍에 생산량 축소
높은 상품성으로 마니아층 이끌어
주행모드 하이브리드 장점 극대화

도요타 캠리는 최근까지도 자동차 시장을 대표하던 모델이다. 탄탄한 기본기에 친환경성, 높은 경제성을 앞세워 전세계에 패밀리 세단 표준을 제시했다.

시대는 바뀌었다. 세단보다는 SUV가 패밀리카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하이브리드도 전기차 열풍에 장점을 잃어 버렸다. 결국 도요타도 캠리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캠리는 여전히 높은 상품성으로 마니아층을 이끌고 있다. 출시된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쟁 모델과 충분히 겨뤄볼만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캠리를 타고 강원도 인제를 다녀왔다. 왕복 약 300km 구간이다. 마침 날씨가 번덕스러웠던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 차량을 시험해볼 수 있었다.

익히 알려진대로, 캠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완벽했다. 시동 버튼을 누르고 출발을 할 때까지는 전기차와 같이 조용하게 미끄러졌고, 고속 주행을 시작하면서는 엔진이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전기모터와 함께 211마력을 총실하게 뽑아냈다.

3가지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해 보여준다. 에코



캠리 하이브리드.

/도요타코리아

와 노멀, 스포츠로 나뉘는데, 가속 페달 감각까지 극명하게 바뀌었다. 에코모드는 전기 모터를, 스포츠 모드는 178마력짜리 2.5L 가솔린 엔진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스포츠모드는 하이브리드라고 느끼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했다.

전기 모터와 엔진간 역할 분배도 재빠르다. 이전 세대에서는 엔진이 과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내기도 했지만, 이번 캠리는 모터와 엔진이 한 몸이 된 듯 자연스럽게 힘을 주고 받는다. 주행 중 모드를 바꾸면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다.

승차감도 탄탄하다. 딱딱하지도, 너무 물렁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으로, 폭우가 내리는 악천후에서도 차체를 안정적으로 떠받치며 수시로 차체 자세 제어장치(VDC)를 작동하며 계기판을 깜빡였다.

핵심은 TNGA 플랫폼이다. 도요타가 캠리에 처음 적용한 신형 뼈대로, 낮은 무게 중심을 가장 큰 장점으로 한다. 물 웅덩이가 잔뜩 만들어진 도로에

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성능도拔群이다. 도요타가 부르는 이름은 ‘다이내믹 레이다 크루즈 컨트롤(DRCC)’.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는데 속도를 부드럽게 조절해줬고, 정지시에도 앞차가 출발하면 빠르게 가속페달을 밟으라 안내했다. 차선 인식 기능이 없긴 하지만,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쟁력은 충분하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7인치 디스플레이,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내장해서 국내 도로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불가능한 점은 큰 단점이겠으나, 미러링 기능이 있어서 조금은 만회할 수 있다.

일본불매운동으로 그냥 묻혀버리기에는 아쉬운 차다. 좋은 차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 다른 브랜드들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기차로 인해 개발까지 정제된 하이브리드카 시장에서 캠리만한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김재용 기자 juk@